

2021년 추석 가정예배



- ❁ 예배를 준비하면서
- ❁ 가족 중 한 분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 ❁ 명절 예배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 거하는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 ❁ 예배 시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절하는 일을 삼가 합니다.
- ❁ 예배를 다 마친 후에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한 마디씩 나눕니다.

묵상기도

다 같이

신앙고백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후렴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가족대표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말씀의 반석위에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여호수아 1장 1-9절

다 같이

1.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설 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

인도자

우리는 살아가며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 겪어보지 않은 문제가 찾아올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속될 때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빠져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며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키십니다.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를 섬기던 여호수아도 모세를 많이 의지하며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부재는 큰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하셨던 주님, 여호수아와 함께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가나안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높은 성벽이 세워졌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강한 무기와 더 많은 병사를 준비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비시키는 것은 무기와 병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방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정이 쫓아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우리 가정되기를 바랍니다.

기 도

인 도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입은 심령을
 2. 주의 손의 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3. 죽음의 요단강 물결 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4. 이후에 천국을 가 서 모든 성도들과 다함 께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 하여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후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들이사 응답하여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